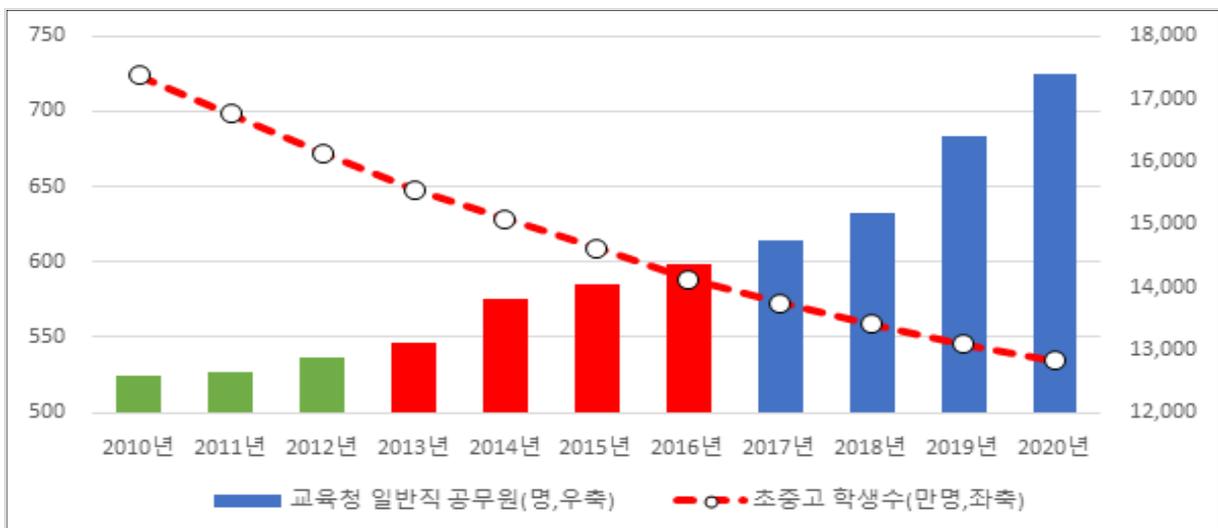


- 초·중·고 학생은 줄고 있지만 교육청에서 일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오히려 크게 증가
 - 지난 10년간 (2010~2020년) 학생 30% 감소하는 동안 교육청 직원은 38% 증가
 - 2020년 전국 시도교육청과 산하 지원청에서 근무하는 교육행정 직원은 17,396명(현원기준, 기능직 포함)으로 2010년 12,579명(현원기준, 일반직 9,362명+기능직 3217명)
 - 문 정부 4년간 (2017~2020년)은 학생 9% 감소하는 동안 교육청 직원은 21% 증가
 - ※ 한국교육개발원 『교육통계연보』 매년 호
- 교육청 재정이 풍족하고 교육감의 인사 권한이 강화되면서 공무원 폭증이 본격화됐다는 지적
 - 현재 내국세 20.79%가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정되고 있음
 - 문재인 정부는 학령인구 급감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교부금 연동률을 두 차례 인상
 - 연동률: 2010~2018년 20.27% → 2019년 20.46% → 2020년 20.79%
 - 이에 따라 교육재정교부금 2010년 32.3조원에서 2020년 60.6조원으로 28.3조원 증가
 - 문 정부 4년간 (2017~2020년) 17.4조원 증가. 이는 전체 증가분(28.3조원)의 61.5%
- 풍족한 교부금을 교육행정에 낭비하지 말고 열악한 현장 교육환경 개선 계기로 삼는 노력 필요
 - “무분별한 교육감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기보다는 기초학력 보장, 학급당학생수 감축과 이를 위한 정규교원 확충, 교실환경 개선 등 학생 교육에 예산이 우선 쓰이도록 조정” (한국교총 보도자료 7/22)

지난 4년간 학생은 9.1% 감소, 교육청 일반직 공무원은 21.1%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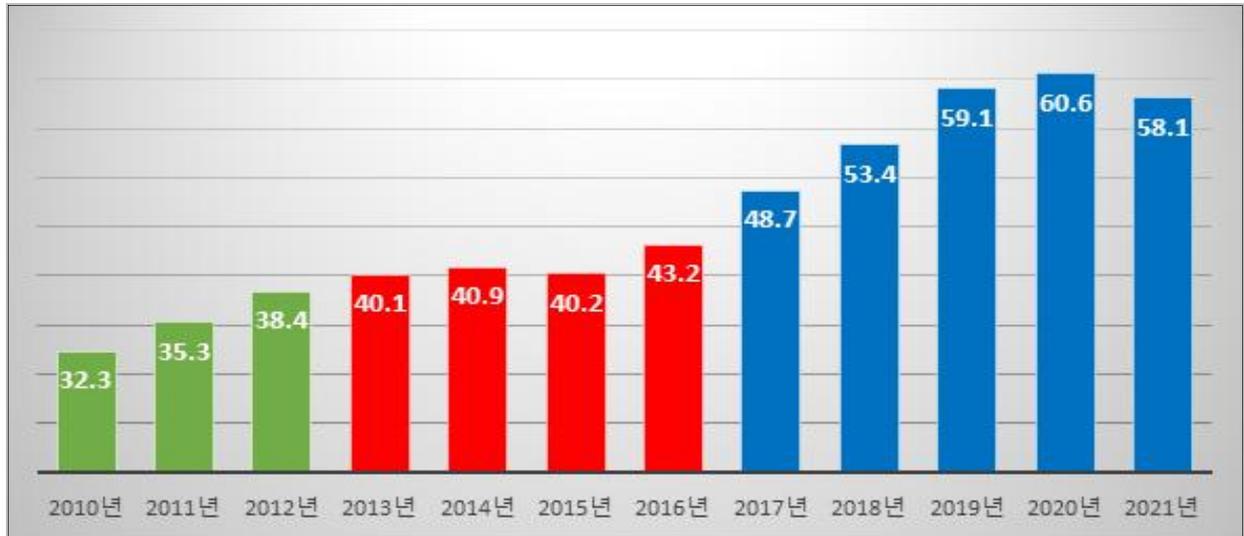
단위: 만 명



자료: 한국교육개발원 [교육통계서비스\(kess.kedi.re.kr\)](http://kess.kedi.re.kr) 『교육통계연보』 매년 호

내국세 21% 자동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속 증가

단위: 조 원



자료: [한국재정정보원 >주요사업>재정정보분석>통계자료집](#) 『2021 주요재정통계』

주: 2019년까지 결산기준, 2020년, 2021년 본예산 기준